

“첫판 징크스 깨야 슈퍼라운드 간다”

류중일호, 내일 대만과 프리미어12 개막전

곽빈·고영표 선발카드...필승 해법은 철벽 불펜 김도영·박동원·윤동희 ‘한방’ 밟고 4승1패 시동



한국 야구대표팀이 쓴 잔을 들이켰던 지난 국제대회를 돌이켜보면, 첫판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게 늘 화근이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13일 오후 7시 30분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리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C) 프리미어12 2024 B조 조별리그 대만과의 첫판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야구에 참담한 기억을 남긴 대회로는 2003 삿포로 아시아선수권대회,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7 WBC, 그리고 2023 WBC 등이 있다. 2003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 1차전에서 우리나라는 대만에 4-5로 털미를 잡혀 결국 2004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을 놓쳤다.

동메달로 대회를 마친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첫판 상대인 대만에 2-4로 졌다.

1라운드에서 졸졸이 고배를 마신 최근 3번의 WBC 역시 1차전 패배를 극복하지 못했다.

2013 WBC에서는 네덜란드에 0-5로 패했고, 안방에서 열린 2017 WBC에서는 이스라엘에 1-2로 졌다.

1차전 필승을 다짐했던 지난해 WBC 역시 호주에 7-8로 무릎을 꿇은 끝에 1라운드에서 일찌감치 짐을 썼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대만(13

일), 쿠바(14일), 일본(15일), 도미니카공화국(16일), 호주(18일) 전까지 5경기를 치르는 대표팀은 최소 4승 1패는 거둬야 안정적으로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슈퍼라운드(4강)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

대표팀은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만전 선발 투수를 일찌감치 내정하고도 꼭꼭 숨기고 있다.

그래도 유력한 후보는 두 명으로 좁혀졌다. 잠수함 투수 고영표(kt wiz)와 오른손 강속구 투수 곽빈(두산 베어스)이다.

고영표는 2021 도쿄 올림픽, 2023 WBC 등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대표팀 선발 마운드를 지켜왔다.

직구와 똑같은 투구 자세, 비슷한 속력으로 날아오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체인지업은 대만 언론이 'B조 타자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품이다.

또 다른 후보인 곽빈은 최고 시속 155km까지 나오는 강속구가 돋보인다.

아무리 대만프로야구에서 강속구 투수가 늘었다고 해도 시속 150km가 넘는 공을 꾸준히 던지는 투수는 흔치 않다.

이들 가운데 대만전 선발로 등판하는 투수는 18일 호주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도 다시 선발 마운드에서야 한다.

대표팀의 대만전 필승 방정식은 불펜 야구다. 선발투수가 5이닝만 버텨준다면,



지난 10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돔야구장에서 열린 프리미어12 한국 야구대표팀과 대만 프로야구팀 웨이취안 드래곤스와의 연습 경기. 1회말 2사 한국 김도영이 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영(KIA)·유영찬(LG)·김택원(두산)·박영현(kt)·조병현(SSG) 5개 구단 주전 마무리 투수들이 줄줄이 출격해 대만의 창을 봉쇄할 참이다.

타선에서는 홍창기(LG)를 공격 참병으로 삼아 김도영(KIA)·박동

원, 문보경(이상 LG)이 이를 중심 타선이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윤동희, 나승엽(이상 롯데), 송성문(키움)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점수를 추가하면 금상첨화다.

/연합뉴스

KIA '마당쇠' 장현식 '4년 총 52억원'...LG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인 불펜투수 장현식이 LG 트윈스에 새 등지를 쓴다.

LG 구단은 11일 "자유계약선수(F.A) 장현식과 계약기간 4년, 총액 52억원(계약금 16억원·연봉 36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NC 다이노스에서 프로 데뷔한 장현식은 2020년 KIA에 몸을 담고, 마운드 필승조의 핵심적인 활약을 펼쳐왔다.

2021년 34홀드를 올리며 KBO리그 홀드왕을 차지했고, 올 시즌엔 팀 내 가장 많은 75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

점 3점대의 호성적을 거두며 KIA의 통합 우승에 크게 공헌했다.

KBO리그 통산 기록은 11시즌 동안 437경기에 출장해 592이닝 32승 36패 7세이브 9홀드 평균자책점 4.91을 작성했다.

장현식은 "좋은 기회를 주신 LG에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KIA, NC 팬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LG의 좋은 선우배 선수들과 함께 최고의 성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식은 원소속팀 KIA와 LG, 그리고 지방 1개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



KIA 타이거즈 출신 자유계약선수 장현식(왼쪽)이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계약기간 4년, 총액 52억원에 계약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 트윈스 제공>

고, 결국 옵션 없이 52억원을 제시한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올해 더욱 뜨거운 스토브리그에서 FA 계약이 이뤄진 건 우규민(kt wiz), 최정(SSG 랜더스), 심우준, 엄상백(이상 한화 이글스), 허경민(kt), 김원

중, 구승민(이상 롯데 자이언츠)에 이어 8번째다.

장현식을 포함해 2025년 FA 자격 선수 3명을 명단에 올린 KIA는 임기영(투수)과 서건창(내야수)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다. /주흥철 기자



PGA 투어 챔피언스 찰스 슈와브 컵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랑거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67세 랑거, PGA 시니어 최고령 우승·최다승 경신

18년 동안 매년 우승 진기록

'시니어 골프의 제왕' 베른하르트 랑거(독일)가 또 한 번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

랑거는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피닉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스 플레이오프 최종전 찰스 슈와브 컵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5인타와 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인타와 26타로 우승했다. 스티브 알거(뉴질랜드), 리처드 그

린(호주)을 1타 차로 따돌린 랑거는 18년 동안 매년 한 번 이상 우승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50세 이상만 출전하는 PGA 투어 챔피언스 챔피언십 통산 47승째를 쌓아 최다승 기록을 더 늘렸다.

그는 지난해 7월 시니어 US오픈에서 우승하면서 헤일 아윈(미국)을 제치고 PGA 투어 챔피언스 최다승 기록(46승)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1년 3개월 만에 우승을 보낸 랑거는 PGA 투어 챔피언스 최고령 우승 기록

도 다시 썼다. 작년 7월 시니어 US오픈에서 세운 65세 10개월 5일을 이번이 1년 넘게 늘렸다.

랑거는 또 이번 대회 2라운드 6타, 3라운드 6타, 그리고 최종 라운드 6타로 사흘 연속에이지슈트를 기록했다. 에이지슈트는 선수 자신의 나이와 같거나 더 낮은 스코어를 적어내는 것을 말한다.

랑거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21번째, 22번째, 그리고 23번째 에이지슈트를 적어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장은미(광산구 가족센터장), 장미영(남구 가족센터장), 노효경(북구 가족센터장),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 전성남(동구 가족센터장), 윤혜경(서구 가족센터장) <광주시체육회 제공>

스포츠·복지서비스 연계...건강하고 행복한 빛고를 조성

광주시체육회·5개구 가족센터 '맞손'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광주지역 5개구 가족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체육회는 11일 광주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5개구 가족센터장(동구 전성남, 서구 윤혜경, 남구 장미영, 북구 노효경, 광산구 장은미)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체육회와 5개구 가족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 가족,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으로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넘어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역 내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따뜻한 분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어 기쁘고, 5개구 가족센터와 함께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 복지를 실현해 가겠다"며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과 광주체육발전

을 위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개구 가족센터는 가족 돌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박희종 기자

김가영, LPBA 최초 4연패

투어 24연승 '최다 연승' 위업...누적 상금 5억원 돌파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여자프로당구 LPBA 최초로 4연승 우승을 달성했다.

김가영은 10일 오후 늦게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끝난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민영(우리금융캐피탈)을 맞아 세트 점수 1-3으로 끌려가다가 5세트부터 7세트까지 모두 따내 4-3으로 대역전승했다.

이로써 김가영은 이미래(하이원리조트)가 달성했던 LPBA 최다 연속 우승인 3회를 넘어 4회 연속 우승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남자부 PBA 최다 연승인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의 23연승을 넘어 24연승을 이어가며 PBA-LPBA 통산 최다 연승 위업도 이뤘다.

여기에 우승 상금 4천만 원을 추가해 LPBA 최초로 누적 상금 5억원(5억 180만 원)도 돌파했다.

프로당구 출범 때부터 꾸준히 LPB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김가영 <PBA 제공>

A 무대에서 활약한 김민영은 프로 데뷔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올랐지만, 눈앞까지 다가왔던 우승 트로피를 아쉽게 놓쳤다.

한 경기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웰컴투랭킹'(상금 200만 원)은 64강전 에버리지 1.923을 찍은 스톤 피아비(캄보디아·우리금융캐피탈)가 가져갔다. /연합뉴스

KLPGA 마다숨·박주영·이동은·지한솔

위믹스 챔피언십 출전권 획득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한 마다숨과 이동은, 박주영, 지한솔이 위믹스 챔피언십 출전권을 땀다.

위믹스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위믹스 챔피언 출전 선수 24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비치 골프&리조트에서 열리는 위믹스 챔피언십 출전 선수는 지난 20일 기준 위믹스 포인트 랭킹으로 20명을 먼저 뽑고 나머지 4명은 KLPGA 투어 시즌 최종전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 종료 시점 위믹스 포인트로 추가한다.

마다숨은 지난달 20일까지는 위믹스 포인트 22위여서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후 S오일 챔피언십과 S

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에서 내리 우승하면서 위믹스 포인트 랭킹 11위로 올라선 덕분에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24위였던 이동은과 25위였던 박주영은 각각 20위와 22위로 올라와 출전하게 됐다.

지한솔 역시 지난달 20일에는 32위였지만 지난달 27일 덕신EPC·서울경제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25위로 상승, 박차를 탔다.

앞서 윤이나를 비롯해 박현경, 박지영, 이에원, 황유민, 김수지, 노승희, 배소현, 방신실, 이제영, 전예성, 유현조, 최예림, 박민지, 이가영, 정윤지, 서어진, 김민별, 최민경, 김민선이 출전권을 확보했다. 작년 챔피언은 이에원이었다. /연합뉴스